



+Bernard - 그림 2022-

3대리구 감삼성당 | 그림 -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2022. 07. 17. (다해) 제2330호

제1독서 창세 18,1-10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2독서** 콜로 1,24-2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0,38-42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빠스카의집 원장 | 김종률 스테파노 신부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다가 자기 앞에 찾아오신 하느님을 손님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이 하느님이심을 몰랐던 것 같으나 어쨌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선의로 한 그 일이 마음에 드신 하느님께서는 극진한 대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의 탄생이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들였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하였습니다. 손님 대접을 잘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서는 영적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인 하느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대가로 선물하십니다.

그러나 마르타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하게 움직일 뿐, 아쉽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일을 돕지 않는다며 동생 마리아에게 화가 났습니다.

마르타가 그러는 동안 동생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알뜰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영적 양식을 받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나와 내 가정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시면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손님 대접받으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려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르타처럼 모시는 일에만 치중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복된 말씀을,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산간학교의 추억

교구 문화홍보국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철입니다. 일찍부터 시작된 폭염과 장마, 국지성 호우, 일기예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기후 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맘때면 각 본당에서는 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로 분주합니다. 지금은 신앙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지만 예전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성경학교,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산간학교로 주일학교의 여름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그때 그 시절 산간학교의 추억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교구는 1970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청도에서 12개 본당 45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교구 최초로 산간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여름방학과 함께 성당에 모여 기도하고 조별 모임도 갖는 등 준비 기간 동안 설렘 가득한 시간을 보내며 손꼽아 기다려온 산간학교.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매미 소리를 벗 삼아 웅기종기 모여 하느님 말씀을 듣고, 서툰 솜씨로 시커멓게 태운 밥이지만 함께 먹어서 더 맛있었던 식사, 신나는 물놀이가 시간이면 낯익은 아이들의 물장난에 혼비백산 도망치던 신부님, 수녀님의 모습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캠프 파이어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에는 온 마음 가득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빛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머물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 그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본당마다 아이들의 수도 줄어들고 예전의 추억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자연을 직접 만날 기회를 갖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신앙학교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연과의 친교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바로 환경교육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에게 자연을 많이, 직접 만날 기회를 많이 갖게 해 줘야 합니다. 머리로만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만나게 해 줘야 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느님, 타인,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어 살면서 관계를 맺을수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거룩해집니다.”(〈찬미받으소서〉 240항)

자연과의 만남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됩니다. 올여름 우리 자녀들의 신앙학교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드리며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구주보 ③



이사악의 희생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창세 22,1-14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 반유닛 수녀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선택과 축복의 약속을 받고 신앙의 여정을 가지지만, 그도 인생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며 신앙을 완성하여 간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 이사악을 얻었지만(창세 21,5) 하느님께서 이사악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창세 22,2c) 왜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걸까? 시험은 ‘함정’이 아니라 신앙을 정화하고 단련케 하는 도구이며, 자신의 논리와 체험을 벗어나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곧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 여기 있습니다.”(창세 22,1) 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창세 22,3). 아브라함의 지체 없는 순명은 하느님께서 원하면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들음의 자세’에서 시작된다.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은 “너의 아들, 사랑하는, 외아들”(창세 22,2)이란 삼중 강조법으로 표현될 만큼 소중한 존재이며, 계약의 징표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주신 아들이니 그분께서 원하시면 언제라도 되돌려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결심 속에서 이미 이사악은 죽은 존재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온전한 신앙과 순명이었다. 이사악이 아버지에게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창세 22,7) 하고 묻자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것”(창세 22,8)이라는 그의 믿음대로 하느님께서 친히 숫양을 마련해 주신다. 원래 인신 제사는 고대 가나안에서 널리 유행했던 우상숭배의 경신례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곳 원주민들로부터 받아들였던 악습이었다.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서 생명을 요구하는 가나안의 우상과 달리, 생명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면서도 이사악의 희생제물을 거절하는 하느님이시다. 또한 이사악의 희생 제사는 골고타 언덕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형이다. 번제로 제헌되기 위하여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사악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상에 봉헌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제물이 되는 이사악인 동시에,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이기도 하다.

이사악의 희생제사는 하느님의 선택에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또한 하느님께 전적인 신뢰를 보였던 아브라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며, 신앙에 따라 순종하는 의인의 전형이다.(히브 11,17; 야고 2,21 참조) **▶**

말씀 맞히기 Q & A

1. 하느님께서 이사악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2. 번제를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친히 들고 간 물건은 무엇입니까?
3. 아브라함은 숫양을 번제로 바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자유 양식) 7월 22일(금)까지 우편(도착분)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천주교대구대교구청 문화홍보국 대구주보 담당자 앞 / 문의: 250-3048

※ 정답은 다음주(7월 24일 연중 제17주일) 주보에 게재됩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2년

김천과 왜관에서의 사목방문

1월 19일 금요일

이번 3일간의 방문은 교우들의 열의 때문에 아주 유쾌한 것이었다. 1899년 내가 한국에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작은 성당(현 부산교구 범일성당)에서였다. 젊은 선교사로서 부산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일본인 어린이를 데려왔는데, 나는 방지거란 이름으로 그에게 영세를 주었다. 나는 이번에 바로 그 방지거 야마구치(山口)에게 건진성사를 주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내가 영세를 주고 건진성사를 준 일본인에게 신품을 주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부산에서 나는 롤랑 신부에 관한 샤프롱(Chatron) 주교의 회답을 받았다. 할 수 없다. 오늘 무세 신부가 부산에 왔다.

1월 20일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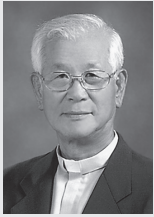
나는 무세 신부를 동반하고 급행열차 편으로 부산을 떠났는데, 무세 신부는 대구에서 내렸고, 나는 김천(金泉)까지 갔다. 거기서도 환대를 받았다. 나는 김[金紋玉] 신부, 그리고 그의 이웃인 서울교구의 홍루가[洪秉喆] 신부를 만났다. 저녁때에는 훌륭한 학교 축제가 행해졌다.

1월 21일 일요일

김 요셉 신부덕에서 머물렀다. 이 임지는 장래가 유망한 것 같지 않다. 모든 큰 시장들처럼 김천도 선교가 쉽지 않다. 게다가 강복된 성당과 함께 신부덕이 세워진 대지는 정부 땅이어서 일본인들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남학교가 하나 있는데, 천주교인 학생들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외교인 학생들 없이는 학교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일본인 학교에게 양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김 요셉 신부의 선임인 김 아릭수[金聖學] 신부가 그의 집을 여학교에 양보한 것이고, 현재 신부덕은 그 부속 건물의 하나이다. 결과들은 이 경솔한 희생을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다.

1월 22일 월요일

9시 열차로 김천을 떠나 곧 왜관(倭館)역에 도착했는데, 소세 신부와 많은 교우들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역 가까이의 한 상인 교우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무세 신부가 왔다. 20리를 채 못 걸어 우리는 가실에 도착했다. 크게 울려 퍼지는 작은 종소리는 나에게 많은 추억들을 되살아나게 했다. 즉 이 종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불러 모은 프랑스 보즈(Vosges) 산맥 마을의 추억이다. 부르공스(Bourgonce) 본당 신부는 이 학교가 국유화된 후 그 종을 떼어 부산의 나에게 보내주었다. 나는 한국의 이 항구 도시에서 처음으로 삼종을 쳤을 때 지냈던 어린이가 같은 기쁨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후 좀 더 큰 종이 생겨서 나는 이 종을 가실로 보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유승열(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유승열(바르톨로메오, 향년 85세) 신부님께서 지난 7월 8일 (금)에 선종하셨습니다. 7월 11일(월)에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으며 신부님의 묘소는 군위 성직자묘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6회 농민 주일 담화

“적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222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바스의 제27회 농민 주일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유고집 출시 판매



사랑이
사랑이되나

출판 | 앞산밀북카페 가격 | 12,000원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김수환 추기경 사진전



2022. 7. 13(수)~19(화)

주교좌 범어대성당 內
드망즈 갤러리

| 전시 문의 |
053)790-1300,
010-5254-9208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공정거래 형태를 통한 우리 농산물(국산, 지역) 구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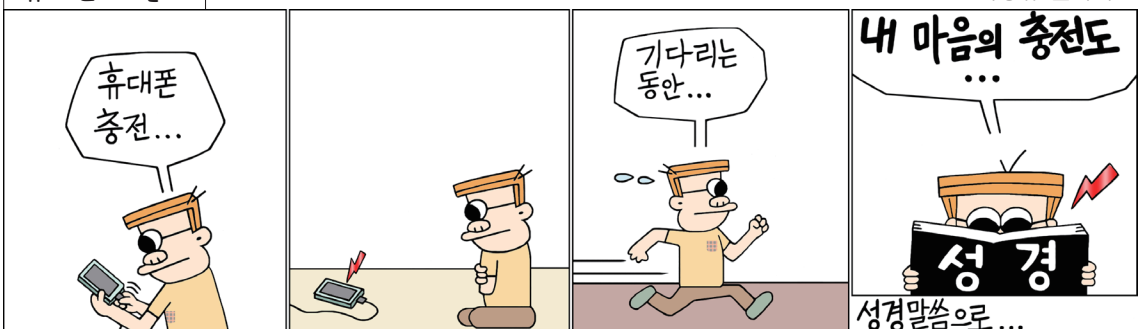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79호 정답

1. 로마서 2. 믿음 3. ① ② ③ ④ 4. 13장 12~14절

휴대폰만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7월 18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21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8일(월) 11:00 죽도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7월 23일(토) 11:00 순례자성당

수도회 성소 | 피정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7.19(화)~20(수)

시니어: 7.26(화)~7.27(수)

문의: (054)382-0091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날짜: 7.31~8.2 / 8.6~9(여름해변일정)

8.13~16 / 9.3~6 / 9.15~17

문의: (02)773-1455 / (064)796-4182

성모승천 전례피정

일시: 8.13(토) 16:30~8.15(월) 13:30

장소: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25만원(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성심복지지원 무료병원 진료 안내

과목: 치과(무료틀니), 한방,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과

대상: 수급자 65세 이하(치과), 노인,

노숙자, 이주노동자, 한부모세대 등

문의: 256-9494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7.18(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문의: (010)2509-9748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90차: 8.12(금)~14(일)

391차: 9.2(금)~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성지 안내봉사를 위한 천주교회사

일시: 9.13~12.20 매주 화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7만원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4300-8767

교구가톨릭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55세 이하의 신자(예비자도 가능)

성가, 합창을 좋아하고 배우고자 하시는 분

연습: 매주(목) 14시 / 범어성당내 대리구청

오디션: 가톨릭성가 1곡(수시모집)

문의: (010)3521-8144 / (010)9375-2267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463-5191

한국여기회 '여기애인' 원고 모집

주제: 봉사, 자선, 이웃사랑의 체험수기

분량: A4용지 2매 이내, 11P

제출: min8641@hanmail.net

소정의 원고료 제공 / 연락처 필수

교구 외 | 기타 알림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영성강좌(무료)

일시: 8.26(금) 10:00~12:30(미사포함)

과목: 예언서(강의자료 무료제공)

장소: 성바오로수도회(선착순20명)

문의: 양은철 신부, (010)9333-6260

예수회센터 동영상강의(사전 녹화본)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신약성경과 영성생활

가톨릭신앙과 영성 다시보기

성경대학: 요한복음 1~3학기

신청: <http://center.jesuit.kr>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분 출구)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망막질환

대표원장 (현 연세대 외래교수) 박중원 (소시모)

안과전문 의·서재신 (베드로)·장주현 (비바리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메타워 4~6층

☎ 053) 626-8881~5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1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정 초빙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모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원장 이 동 구 (마티아)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요 안 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본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구독료 18,000원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구독료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임청(베드로) 신부
1981년 7월 20일

교구 | 대리구 알림

임신부 축복 미사

일시: 8.12(금) 10:00~12: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대상: 신자 임신부(신청필수)

진행: 모임 후 축복미사

신청: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여름연수 신청

216차 창세기: 8.18(목)~21(일)

217차 탈출기: 8.25(목)~28(일)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 신청비: 15만원

대상: 파스카 팀공부를 완료한 청년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8월 카나혼인강좌

일시: 8.21(일) 9:30~17:00

장소: 교구청 다동 대강당

참가비: 2인, 5만원(사전 신청) /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8.11(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성주성당 사무장 채용

조건: PC 가능자, 신앙생활 충실하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054)933-3122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제26기 뿌엘레간또레스 합창단 모집

대상: 초4~중1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시편성가 방송 안내

대구평화방송의 매주일 미사에

뿌엘레간또레스의 연주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여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성바로로안나의집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 1길 118-31

대상: 만60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 어르신

문의: (010)5314-5903 / (054)382-1634

칠곡가톨릭병원 건강검진센터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검진 및

종합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 전화: 320-2061

온라인 예약: <http://www.tcmccch.co.kr>

대구광역시청소년수원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8월 말~12월 중순(16주간)

화, 토요일(선택) 10:00~17:30 / 80만원

수, 목요일(선택) 9:30~13:00 / 40만원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문의: 성바로로CPE센터, (010)4996-5508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대동)

<http://www.sungsam21.com>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 앞 053-959-7175
010-9597-717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24시간 요로결석

비엔 비뇨의학과
피부과

대표원장 전문의 이 윤 형 (요셉)

삼정브리타시 건너편 올리브영 3F
Tel. 053 552 2525

www.theopen-daegu.co.kr **관원! 출생계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무릎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 진 옥 루카

T. 555-5520 죽전역 5번 출구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1688-7667**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억기(바로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백합식품
샐러드성바로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맛

백합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하호로 142 (이마트 앞삼거리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